제 773 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4대강을 위한 방생법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길…

2월 23일 여주 남한강변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가 봉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1500여 사부대중이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하며 남한강 순례길에 올랐다.

"무엇이 방생입니까? 멀쩡한 물고기 잡아다가 풀어 주는 것이 방생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중생, 힘없고 여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참된 방생입니다. 왜곡된 생명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강을 위한 방생법회 및 수륙재에서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화계사 주지)의 목소리가 남한강변에 울려 퍼졌다.

스님은 "한반도 4대강을 파헤치는 폭력적 행위를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통곡뿐이다. 아파서 우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럴까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스님의 상기된 목소리에 얼굴에서는 눈물까지 흐르자 행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울 옥천암에서 왔다는 한 신도(54)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방생법회에 동참했는데 뭉클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신륵사는 행사준비에 떠들썩했다.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 봉행위원회(이하 봉행위)는 2월 23일 오전 10시 신륵사를 따라 흐르는 여주 남한강변에서 '4대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법 · 절차, 국민의 목소리마저 무시된 채 진행중인 4대강 사업,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무수한 유정 무정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인간만이 즐거움과 욕심 채우려 다른 목숨 취해

강에 참회의 21배 올리고 남한강 숨결 답사

행사에는 청화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과 수경 스님, 법안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을 비롯해 유길준 에코붓다 사무국장 등 불교환경단체 관계자, 화계사 수원사 금선사 옥천암 봉영사 신륵사 용화사 법장사 용천사 좋은절 신도들이 참여했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도 참여해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여주 남한강변은 1500여 사부대중으로 가득했다. 강을 향한 불자들의 뜨거운 염원이 전해졌을까? 차츰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안개 사이로 떠오른 해는 무심히 강을 비춰 반짝이고 있었다.

청화 스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법문하며 서정주 시인의 일화를 소개했다.

"젊은 날의 서정주 시인은 삶의 덧없음을 알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쳐 자살은 실패했죠. 그런데 다시 살고 보니 그렇게 살아 숨 쉬는 것이 고귀하게 여겨질 수 없더랍니다."

청화 스님은 "모든 생명은 안락과 행복을 원한다"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평화로이 공생하는 삶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민의 세금으로(22조원) 진행되는 사업이 환경 미 검토,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강을 방생시키는 방법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모름지기 불자라면 부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인 불살생 계를 지켜야 한다"며 "방생은 불살생의 적극적 실천이자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다른 생명들은 필요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즐거움과 욕심 때문에 다른 목숨을 취한다. 인간사의 비극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참회 · 기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여주남강에 펼쳐진 모습은 극과 극 이었다. 한쪽에서는 "유정 · 무정을 방생하자"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는 보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과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사이엔 물이 흐르고 새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행사에서 자리를 점검하고 행사 식순을 살피던 남양주 봉영사 불자(60)는 "당연히 그만둬야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말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양주 봉영사 신도(57)는 "이거(4대강 사업) 좋다는 사람 하나 없다. 수질 개선한다면서 환경을 훼손해서 되겠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을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추진하겠어요. 경제가 살아야 우리 같은 서민이 먹고살죠. 뭐 환경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런 것만 해소되면 좋고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걱정이 크다.

2009년 10월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은 73.5%로 집계됐다. 같은 해 12월 조사에서는 4대강 예산을 대폭 ·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62.4%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의 목표는 물 부족 해결 · 홍수 대비 · 4대강의 수질개선 · 경제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UN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기에 많은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UN에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없다. 또 2006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최대 가뭄 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거의 없다.

강을 위한 기도문을 봉독하는 수경 스님(오른쪽)과 4대강 사업 반대를 염원하는 불자들.

만약 물이 부족한 지역은 지역 간 이동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초래되는 수질 오염이다. 정부에서는 수질개선을 한다지만 오히려 강에 하구둑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수중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막힌다. 전문가들은 "수중보 설치로 강의 정화기능이 훼손돼 물이 썩는다"며 "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시간에 걸친 법회는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과 기도로 엄중하게 봉행됐다. 행사 막바지 이르러 사부대중이 강을 향해 21배 참회의 절을 올렸다. 사홍서원에 이어 법회장에서 신륵사까지 걸으며 남한강의 숨결을 느끼는 답사가 이어졌다. 걸음걸음을 내딛는 참여자들은 합장을 하고 "오늘 법회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공덕으로 4대강 사업이 중단되길 발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